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달항아리를 닮은 아이』

정보 전광석 글·양양 그림 | 168쪽 | 153*210mm | 무선 | 16,000원

주제어 달항아리, 도자기, 성장, 인내, 관계, 자아

교과 연계

3학년 1학기 국어 10. 문학의 향기
4학년 1학기 국어-가 1. 깊이 있게 읽어요
5학년 1학기 국어-가 2. 작품을 감상해요
6학년 1학기 국어 독서 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6학년 도덕 3. 나를 돌아보는 생활

도자기를 빚듯 마음을 빚어내는 지혜, 그 안에서 피어나는 빛나는 우정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며 공부도 잘하고 발표와 글짓기 실력까지 좋은 경준이는, 어느 날 갑작스런 엄마 아빠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 수원에 홀로 계신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새 학교생활은 겉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경준이의 내면에는 남모를 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준이에게, 마치 눈엣가시처럼 유달리 신경이 쓰이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늘 친절하고 밝게 웃는 김혜인. 아무리 통명스러운 태도로 밀어내고 선을 그어도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는 혜인이를 보며, 경준이는 그동안 자신이 겉으로만 판단하곤 했던 사람들의 내면과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씩 들여다봅니다.

『달항아리를 닮은 아이』는 도자기를 빚듯 섬세한 손길로 마음을 빚고 관계를 맺어 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이 흘러도 지지 않는 사람의 인연과 진심을 노래한 동화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은 사라지지 않고 어디엔가 남아 이어진다는 할아버지의 말처럼, 이러한 마음들을 소중히 들여다보고 헤아리는 손길 안에서,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오롯한 달항아리로 성장하며 완성을 향해 오늘도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책 읽기 계획

이 독서 지도안은 10차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책 읽을 시간과 토론할 시간을 안배하고,
두세 가지 활동 가운데 가능한 것을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계		차시	활동내용
읽기 전에	책과 첫인사를 나눠요	1	* 『달항아리를 닮은 아이』는 어떤 책일까요? - 제목, 작가, 표지 등 기본 정보 살펴보기 - 표지를 보고 이야기 만들어 보기
읽으면서	책 속으로 쏙! 들어가요	2	* 책 속 인물관계도 그리기 - 이야기의 내용 파악하기
		3	* 나에게 올림을 준 명장면 소개하기 - 이야기의 구조 파악하기
		4	* 책 속 단어 사전 만들기 - 이야기 속 표현 이해하기
		5	* 우리의 전통 문화재를 찾아서 1 - 이야기의 소재에 다가가기
		6	* 우리의 전통 문화재를 찾아서 2 - 이야기의 소재에 다가가기
		7	* 우리 사이 갈등 해결 방법! -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 나누기
읽고 나서	책 밖의 세상과 이어져요	8	* 드러나는 겉모습, 느껴지는 속마음 - 이야기와 관련된 경험 나누기
		9	* 달항아리처럼 소중한 것 - 이야기의 주제 이해하기
		10	* 세상에 우리가 남길 흔적 - 이야기의 주제 이해하기



『달항아리를 닮은 아이』는 어떤 책일까요?

◎ 책의 표지를 보고 이 책의 정보를 적어 보세요.

	제목: 달항아리를 닮은 아이
	글 작가: 전광섭
	그림 작가: 양양
	출판사: 고래벳속

◎ 표지를 펼쳐 놓고 꼼꼼히 살펴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책 속의 내용을 자유롭게 상상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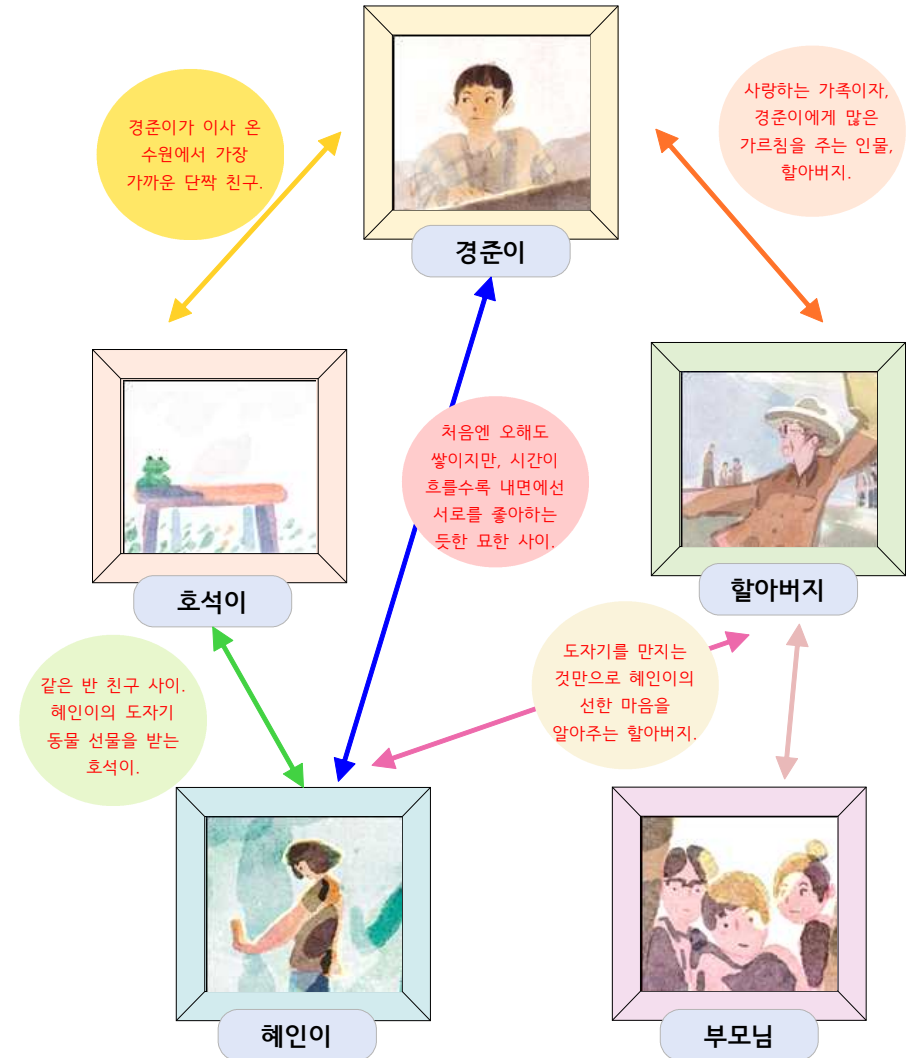
오묘한 빛깔로 영롱하게 반짝이는 항아리 _____이(가) 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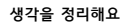
내가 상상하는 이야기는...

책의 제목처럼, 달항아리를 닮은 아이가 주인공인 이야기일 것 같다.
저 달항아리에 어떤 마법이 깃들어 있어서, 영한 힘을 쓸 수 있는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룬 이야기가 아닐까?

책 속 인물관계도 그리기

◎ 『달항아리를 닮은 아이』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의 관계와 서사를 한눈에 알아보아요. 책을 읽고 인물관계도를 정리해 보세요.





생각을 정리해요

◎ 이야기의 목차에서 내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부분을 꼽아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고,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문장을 소개해 주세요.

도자기 연필꽃이 • 10	할아버지의 고백 • 89
외로운 하룻길 • 20	도자기 액자 • 102
할아버지가 기다리는 사람 • 32	영결결에 쫓아낸 도둑 • 113
도자기 청개구리 • 46	호석이네 할머니의 죽음 • 123
박물관에서 겪은 일 • 56	할아버지의 춤 • 130
할아버지를 위한 복수 • 70	뜻을 이룬 할아버지 • 140
글 보기 싫은 아이 • 82	달항아리를 닮은 아이 • 160

첫 시작 부분인,
‘도자기 연필꽃이’ 부분이
가장 재미있었다.
나는 책이나 이야기는
항상 도입부가 가장
재미있고, 그 다음으로
결말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달항아리를 닦은
아이』도 내게는 그랬다.
처음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다.

헤인이가 도자기를 만
드는 방법에 대해 반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해 주었던 말 중에,
도자기가 숨을 쉬거나
살아 있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불은 생명이라. 오히려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지.”(13쪽)

불은 뜨겁고 강하고,
오히려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장을 보고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머리가 땡졌다.

필요한 지식을 배워요

필요한 지식을 배워요

단어의 뜻과 쓰임을 배운다.

◎ 국어사전이나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을 활용해 책을 읽으며 낯설게 느껴졌던 단어나 새로 알게 된 어휘들의 뜻과 활용을 알아보세요.

[illegible]



필요한 지식을 배워요

새로운 정보를 접하며 이야기의 소재에 다가간다.

우리의 전통 문화재를 찾아서 1

◎ 책의 소재로 쓰인 '달항아리'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보까요? 인터넷 검색 혹은 주변의 박물관 견학을 통해 실제 달항아리 작품들과 역사의 기록들을 조사해 보고 기록 일지를 써 보세요.

조사 방법		
조사 목적		
조사 내용	사진 사진	
조사 후 알게 된 점		
더 알고 싶은 점		



필요한 지식을 배워요

새로운 정보를 접하며 이야기의 소재에 다가간다.

우리의 전통 문화재를 찾아서 2

책 속에는 화홍문과 화성행궁 등 정겹고도 생생한 문화재와 공간들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내가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문화재나 공간을 꼽아 조사해 보고 발표해 보세요.

내가 고른 문화재		
고른 이유		
조사 내용	사진	
조사 후 새롭게 알게 된 점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점		



경험을 나눕니다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며 주제에 다가간다.

우리 사이 갈등 해결 방법!

◎ 학교생활 중에서 주변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나의 방식을 적어 보세요.

★ 어떤 갈등을 경험했나요?

내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 이 갈등이 생긴 이유는요?

난 친구를 위한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감정이 상해 버렸다.

내가 이 갈등을 풀어낸 과정과 방법은?	그 과정에서 배운 점과 느낀 점은?
변명이나 더 큰 거짓말을 하지 않고, 투명하게 내 잘못을 인정한 뒤에 친구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그리고 친구의 감정이 풀릴 때까지 옆을 지키며 기다렸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배웠다.



경험을 나눕니다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며 주제에 다가간다.

드러나는 겉모습, 느껴지는 속마음

◎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곤 했던 경준이가 주변의 내면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변화해 가듯이, 책을 읽으며 나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되돌아볼까요? 나에게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속마음이 달랐던 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 그때의 기억이나 느낌을 정리해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마음이 달랐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 나의 경우

공포 영화를 보고 속으로는 사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바깥으로 티가 나면 왜인지 부끄러워서 겉으로는 하나도 무섭지 않은 척, 센 척했다.

★ 친구의 경우

겉으로는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구는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 오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사실은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해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의 감정이나 느낌은 어땠나요?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정말 내면이나 속마음이 어떤지는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상대적이고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인 것 같다. 그래서 겉모습과 속마음이 꼭 같을 수도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잘 들여다봐 주고 헤아려 주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을 나눠요

경험을 반영하여 이야기의 주제를 성찰한다.

달항아리처럼 소중한 것

© 헤인이의 도자기와 옛 은인 도예가의 달항아리처럼, 내가 소중히 아끼온 물건과, 그 안에 깃든 특별한 기억을 소개해 주세요.



내가 소중히 아끼 온 물건을 소개해 주세요.	이 물건에 깃든 특별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을 나눠요

이야기의 주제를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세상에 우리가 남길 흔적

© 다음 할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어 보며, 그동안의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에 대한 다짐을 되새겨 볼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은 사라지는 게 아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엔가 다 기록되어 있단다. 당연히 어떤 사람이 갖고 있던 물건에도 흔적을 남기지."

과거의 내가 남긴
생각과 말, 행동 중에 어딘가에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가슴 속에
내가 새긴 아픈 못이 있는 거 같다.
그리고 함께 보낸 추억과 사랑도
함께 남아 있는 거 같다.

앞으로의 내가 남길
생각과 말, 행동 중에 어딘가에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계 기네스북에
나의 이름과 업적을 남기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잊은 말들이나 감정도
부모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 소중히 간직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멍 때리기 대화'처럼,
엉뚱하고 재미있고 가벼운 일화로 등재되면
늙어서도 재미있는 추억 될 것 같다.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나의 목소리와 얼굴, 손짓 등의 모양새로.
또 나의 냄새나 표정 등으로 생생하게.

어떤 모습으로 남았으면 하나요?

어떤 이야기로 세계 기록을 갱신하든,
그때의 내 모습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남고 싶다.